

울릉군 독도 요약

새로운 사실 발굴하는 노력있어야

-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일은
- 흥분하고 떠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 사실을 정확히 알고 사실에 입각해서
-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 사실을 아는데 아전인수(我田引水)식의 것보다는
- 객관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 이제 이미 알려진 사실보다는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 더욱 발굴해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우리 모두 합리적인 해결점을
-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

한 상 복 /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장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는 지금도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으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웃나라인 일본과 영토권에 관한 논쟁의 와중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독도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기에 다음과 같이 울릉군 독도의 요약을 정리한다.

지리적 위치

독도는 동해상에 외롭게 솟아난 바위덩어리로,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울릉도로서,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지리적 위치는 다음과 같다.

- (1)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에 위치함.
- (2) 울릉도 동남동쪽 47.3해리(87.5km)에 있음.
- (3) 오키시마 북서쪽 85.7해리(158.7km)에 있음.

구 성

독도는 수백만년전에 해저에서 용암이 분출하여 생겨난 화산도(火山島)로,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두 개의 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비롯하여 31개의 부속도, 56개의 암초로 이루어짐.
- (2) 총면적은 0.186 평방km임.
- (3) 서도와 동도 사이는 폭 150m, 길이 330m, 수심 10m 이내의 수로(水路)가 있음.
- (4) 서도의 면적은 0.092 평방km, 표고 168m, 해안선 길이 2.1km 임.
- (5) 동도의 면적은 0.065 평방km, 표고 98m, 해안선 길이 1.9km 임.
- (6) 수 백만년전 해저에서 용암분출에 의해 형성된 화산도임.

현재 행정구역

독도는 현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하고 있으며, 육지와와의 주된 교통로는 포항이다.

- (1)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산 37 (2000년 4월 7일 독도리 신설).
- (2) 울릉도의 부속도서임.

거주관계

독도는 자연상태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무인도에 해당하며, 마실 물도 없다.

- (1) 자연적으로 무인도인 암석임.
- (2) 화성암으로 조면암질 집괴암과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음.
- (3) 여름철 수산물 채취를 위해 임시 거주만이 가능함.

자연환경

독도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는 전선대에 자리잡고 있으며, 주로 대마난류의 세력 성쇠에 따라 자연환경이 바뀐다.

- (1) 기온은 연평균 13.7도, 2월에 3.5도(최저), 8월에 25.1도(최고)임.
- (2) 수온은 연평균 16.5도, 3월에 9.2도(최저), 8월에

25.1도(최고)임.

- (3) 강수량은 년 1,400mm 정도이며, 파도 치는 날이 년 180일 정도임.
- (4) 전형적인 해양성기후로 바람이 강하고 파도치는 날이 많음.

울릉군 행정의 변천

울릉도에 행정기관이 설립된 것은 1898년부터이고, 1906년 9월부터는 전통적으로 강원도 관할이던 것이 경상남도 관할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당시 울릉도 가는 뱃길이 부산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포항-울릉도간 해로가 열리면서 1913년 12월 이후에 울릉도는 경상북도 관할로 변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1) 1898년 5월 26일: 울릉도에 도감(島監) 두는 것을 법제화 함(칙령 제 12호).
- (2)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함(칙령 제 41호).
- (3) 1906년 9월 24일: 울도군이 강원도에서 경상남도 관할로 변경됨(칙령 49호).
- (4) 1913년 12월 29일: 울도군이 경상북도 관할로 변경됨(총독부령 제 111호).
- (5) 1914년 4월 1일: 울도군에 서면, 남면, 북면 등 3개

면을 둠(경상북도령 제 2호).

- (6) 1915년 5월 1일: 울도군 군수가 울릉도 도사(島司)로 개칭됨(총독부령 제 44호).
- (7) 1949년 8월 15일: 울릉도 도사를 울릉군 군수로 개칭함(법률 제 32호 지방자치법).

독도 인식의 역사

동해 먼 바다에 두 개의 섬이 뚜렷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1454년(단종 2년)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인데, 여기서는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에 우산도와 무릉도 두 개의 섬이 설명되고 있다. 무릉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었다. 우산도(于山島)는 자산도(子山島)라고도 나오는데 1696년(숙종 22년) 이것이 일본인들이 부르는 松島(마쓰시마)와 같음을 알고 있었다. 1904년 9월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獨島)라고 쓰며, 일본어부들은 리양꼬島라 부른다는 것이 채록되었으며, 1906년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독도라는 명칭이 나타나고 있다. 독도 인식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于山)이라는 나라

명칭 등장함(우산국 즉 울릉도).

(2) 1425년(조선 세종 7년): 우산 무릉등처 안무사 김인후라 하여 우산도와 무릉도(울릉도) 표시함(세종실록 권 30).

(3) 1454년(단종 2년):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에 우산도와 무릉도의 존재를 뚜렷이 함(세종실록 지리지).

(4) 1530년(중종 25년): 강원도 울진현 동쪽 바다에 우산도와 울릉도의 두 섬 존재를 뚜렷이 함(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람도).

(5) 1667년(寬文 7년, 현종 8년): 일본문헌 隱洲視聽合記에 松島(독도 해당)와 竹島(울릉도 해당) 기술함.

(6) 1694년(숙종 20년): 왜인들이 말하는 竹島가 우리나라의 울릉도임을 확인함.

(7) 1696년(숙종 22년):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가 于山島(于山島의 誤記)로 우리나라 땅이다(松島卽于山島此亦我國地).

(8) 1760년대: 이익의 성호사설중 울릉도 설명에서 안용복 사건 기술시 왜인들이 부르는 松島가 우리의 于山島라고 바로 잡음.

(9) 1809년: 심상규 서영보 등이 편찬한 만기요람의 문헌

비고울릉도사실에서 여지지에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이며 于山을 왜인들이 松島라 부른다고 함.

(10) 1827년 러시아의 Krusenstern은 Dagelet(울릉도)를 Matsushima로, Argonaut를 Takeshima로 인식함. Dagelet는 1787년 La Perouse가 울릉도에 붙인 별칭이며, Argonaut는 1791년 James Colnett이후 울릉도 북서쪽에 생긴 섬임.

(11) 1840년 Siebold가 Map of Japan에서 Matsushima(Dagelet), Takeshima(Argonaut)로 정리함.

(12) 1849년 4월 울릉도 남동쪽에 있는 바위섬의 존재가 Liancourt호에 의해 알려지고 Liancourt Rock로 표기되기 시작함.

(13) 1854년 4월 러시아의 Olivutsa호에 의해 Olivutsa와 Menalai로 명명됨.

(14) 1855년 4월 영국의 Forsyth에 의해 위치가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으로 측정되고 Hornet Island로 명명됨.

(15) 1855년 Paris에서 발행된 지리학회지에 김대건신부가 정리한 조선지도를 소개해서 동해 멀리에 Oulangto(울릉도)와 Ousan(우산) 두

개의 섬이 있음을 알림.

(16) 1861년 영국해군수료부에서 출판한 China Pilot 제 3판 이후 울릉도가 Matsushima (Dagelet)로 불리고, 독도에 해당하는 섬이 Liancourt Rocks로 정착됨.

(17) 1899년 9월 23일자 황성신문 별보 제 1면에 울릉도사항을 신고 있는데, 울진 동쪽 바다에 하나의 섬이 있으니 이를 울릉이라 하고 그 부속한 6개의 작은 섬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이 于山島와 竹島라 함.

(18) 1900년 10월 25일 발표된 칙령 제 41호에서 울도군의 행정구역을 울릉전도와 竹島, 石島를 관할하도록 함. 石島는 독도의 이두형태로 1880년대 이후 울릉도 주민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명칭으로 판단됨.

(19) 1904년 9월 25일 죽변-울릉도간 해저전선 부설작업중이던 일본군함 新高의 행동일지에 리양꼬르도岩을 韓人들은 獨島라 쓰고 일본어부들은 리양꼬島라 한다고 채록함.

(20) 1904년 11월 20일 일본 해군 군함 對馬號 독도 상륙하여 감시망루 적지 조사함.

(21) 1905년 2월 22일 일본 島根縣에서 告示 제 40호

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隱岐島와의 거리 서북쪽 85해리에 있는 도서를 竹島라 칭하고 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함.

(22) 1905년 7월 25일 독도 망루 기공, 8월 19일 준공함. 10월 8일 울릉도-독도간 해저전선 부설함. 1905년 10월 15일 노일전쟁 종료로 10월 24일 독도망루 인원 철수함.

(23) 1906년 3월 29일 울도군수 심홍택의 긴급보고에 본군소속 獨島라고 함.

(24) 1906년 5월 1일 대한매일신보에 울도군수 심홍택의 긴급보고사항 보도. 獨島가 인쇄되어 널리 알려진 최초의 문헌이 됨.

(25)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 발표.

(26) 1952년 1월 28일 일본정부는 Takeshima(竹島)가 일본영토라고 항의해옴.

(27) 1953년 4월 20일 울릉도 주민으로 구성된 독도의 용수비대 독도 상주 시작함.

(28) 1954년 8월 10일 독도 등대 점화.

(29) 1956년 12월 25일부터 경찰이 상주하면서 치안유지와 경비업무 담당.

(30) 1997년 11월 독도 점

안시설 및 어민숙소 완공.

(31) 1999년 3월 10일 독도 유인등대로 변경.

독도 요약

독도에 관한 논쟁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독도가 무인도였기에 정확한 역사자료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사람이 살아왔다면 영토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로서 의미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독도는 무인도로 유인도인 울릉도의 부속도에 해당하며(독도에서 보이는 곳은 울릉도가 유일함) 모든 문헌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기술되는 것이 상례임.

(2) 독도(獨島)라는 명칭은 1880년대 이후 울릉도 개척민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겼으며, 1904년 최초로 채록되었고, 1906년 최초로 인쇄된 문헌에 나타나면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3) 1906년 이전에는 주로 우산도(于山島)로 많이 알려졌음.

(4) 일본에서 독도가 竹島(다께시마)로 표기되기 시작하는 것은 島根縣 고시가 발표된

1905년 2월 22일 이후임. 일본문헌에 나타나는 竹島는 시대에 따라 울릉도 혹은 Argonaut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때에는 울릉도 동쪽 2km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섬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함.

(5) 독도는 1952년 1월 28일 이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권 논쟁이 일어났고, 1953년 4월 이후 한국에서 실효적으로 점유하며 상주하고 있음.

(6) 독도는 자연적으로 무인도였기에 1840년대 이후 항해시의 위험한 장애물로 주의를 끌어왔으며, 독도등대는 전세계적으로 안전항해에 기여하고 있음.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일은 흥분하고 떠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사실을 정확히 알고 사실에 입각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사실을 아는데 아전인수(我田引水)식의 것보다는 객관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미 알려진 사실보다는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더욱 발굴해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㉔